

# 기계와 예술의 만남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성료



### 서울·부산 연동 관람객 8천 명...7개국 8개 도시 61명 참가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 특성·문제점 풀어내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 약 8,000여 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으며 지난 7일 막을 내렸다. 주 전시관이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 2관과 미디어월 4,500명, 서울미디어캔버스 2,000명, 부산 영화의 전당 1,500명 등이 전시 기간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작품을 감상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7개국 8개 도시 61명이 참가해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신의 탄생'을 주제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문제점들을 미디어아트로 풀어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해 3일이었던 전시 기간과 달리, 10일로 연장됐다. 지난해 너무 짧은 전시 기간으로 인해 보다 많은 시민이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랬다. 또, 지하 주차장에서 진행된 지난해 전시와는 달리,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장소가 옮겨졌다. 전시주제와 전시장에 맞춰 초대된 참여

작가들의 신작이 70여 점에 이르면서 광주라는 지역과 공간적 특색이 미디어아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강하게 각인되는 계기가 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연동전시회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미디어아트 영상작품을 상영하고 있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광주에서만 행사가 아닌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외연 확대를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중성과 예술성,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렸다.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국면을 잘 보여주고서 이런 전시가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있었다는 놀라움의 긍정적 평가가 있었던 반면 이해가 힘들고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특히 태식그룹의 개막 공연에 대해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는 관객들이 많이 볼 수 있었다.

정송규 무등현대미술관장은 "광주의 미디어아트하면 LED 등 빛을 활용한 게 주류였는데 이번 페스티벌에선 미디어아트의 또 다른 측면



개막공연 'howwhy'

을 보여줬다"며 "시각적 향연뿐 아니라 기계와 예술의 만남이 어떻게 이뤄지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너무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더 좋은 주제와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

했다. 한편, 페스티벌 기간 동안 열린 미디어아트정책포럼에선 알고리즘사회와 미래도시, 그리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향후 정책방향, 미디어를 통한 인간다운 가치 창조, 광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거점과 플랫폼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보람 기자



그레이트 플루트 앙상블

◇그레이트 플루트 앙상블 제16회 정기연주회 = 10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진)

◇천원의 낭만 'Dear Mom' =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2018 가구 상상을 담다 = 10-14일 조선대학교 미술관

◇퓨전국악 콘서트 '뽀뽀 월월' = 11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예회관

◇JS뮤지션스 그룹 정기연주회 = 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박영근 오보에 독주회 =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 대구극단 한울림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 11-12일 오후 7시30분 씨어터연바람

◇서기문 개인전 = 11일-2019년 1월 31일 소암미술관

◇오페라 갈라콘서트 '영화 속 아리아를 좋아하세요?' = 12일 오전 10시 광주아트홀

◇소리모아 더 힐링 3th '사랑은 가도 옛날은' = 12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가족뮤지컬 잠자는 숲속의 공주 = 12-1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제2회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 12-19일 진한미술관

◇광주가야금연주단 초청 가야금 연주회 = 13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 13-15일 밤 8시, 토요일 오후 5시 예술극장 통

◇장진수 개인전 = 13-19일 갤러리S

◇전남대학교 조소과 졸업전시 = 13-19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

◇무등갤러리 작가지원 프로젝트 '예술길을 걷는 작가들' 전 = 13-19일 무등갤러리

◇광주시향 제339회 정기연주회 'Adieu! 2018 송년음악회' =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윤정 오보에 독주회 = 14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렉처콘서트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 15일 오후 5시 광산문예회관

◇2018 장사의 소리판 = 15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장유진

이하나

김민지

이정란

조성현

김다솔

## 연말에 만나는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 장유진·이하나·김민지·이정란·조성현·김다솔 19일 광주 무대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SOLOISTS)는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대표 앙상블 중 하나다. 매년 새롭게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친숙한 곡부터 초연곡에 이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다.

지난 2007년 뛰어난 재능을 바탕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음악가들을 중심으로 창단됐으며, 각 멤버들은 주요 국제 콩쿠르의 수상자이자 활발한 활동으로 세계에서 높이 인정받고

있다. 금호영재·영아티스트콘서트 시리즈로 데뷔해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해 온 역대 멤버로는 피아니스트 손열음, 김선욱, 조성진, 바이올리니스트 최예은, 신지아, 신아라, 비올리스트 이유라 등이 있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는 금호아트홀을 주 무대로, 이스라엘, 제네바, 카자흐스탄, 런던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음악가로 초대되어 무

대에 올랐고, 서울국제음악제, 부산문화회관, 광주 금호아트홀, 통영국제음악당, 울산·대구 문예회관 등 국내 각지에서 실내악 무대를 선보였다.

지난 11년간 80여곡이 넘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한국 클래식 음악을 널리 알리고 실내악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음악성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이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전석 5만원(학생 3만원). 문의 062-360-8437. /이연수 기자

### 무대 셋업 관람·쇼케이스 경험

#### ACC 백스테이지 투어

매주 수 오후 5시 30분

공연장 백스테이지는 어떤 모습일까? 창작자들이 모여 작품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는 공간에는 무엇이 있을까?

'ACC 백스테이지 투어'가 내년 2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평소 공연 또는 전시 관계자들만 이용하는 예술극장 및 문화창조원 전시관의 백스테이지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 기간 공개한다.

역사적 현자인 옛 전남도청 등 민주평화교류원의 외관을 본 후 예술극장의 극장1 또는 극장2 내부, 공연 연습이 이루어지는 아뜰리에, 융복합 콘텐츠를 연구하고 실험·개발하는 창작센터 등을 위주로 둘러본다.

투어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12월은 ACC 홈페이지의 ACC 투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acctourteam@gmail.com)로 접수하고, 내년 1-2월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연수 기자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